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딜레마

이선미 · 강부월 · 김창희^{1†}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충청대학 치위생과¹

Dental Hygienist's Ethical Dilemma

Sun-Mi Lee, Boo-Wol Kang and Chang-Hee Kim^{1†}

Dep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Suwon-Si, Gyeonggi-do 440-714, Korea
¹Dept. of Dental Hygiene, Chungcheong University, Cheongwon Kun, Chungbuk 330,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on ethical dilemma.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56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in dental clinics.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SPSSWIN 14.0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In relation to awareness of ethical principles, 64.9 percent knew the fact that there were ethical principles to abide by, though they weren't aware of the principles in detail. When they were in ethical dilemma, most of them consulted with their colleagues(84.0%). 2. As to the necessity of ethical education, 86.8 percent felt the need for that. Concerning intention of receiving ethical education, however, as many as 41.6 percent didn't yet have any particular intention about that, and 50.0 percent intended to receive that education. 3. As for influential factors for ethical decision making, hospital policies and decision-making process were most influential(3.50), and fear for a possible loss of job exerted the smallest influence on that(2.49). 4. Regarding the cause of ethical dilemma, they fell into an ethical dilemma the most due to their own professional duties(2.56), followed by patients(2.33) and cooperators(2.28). Their overall dilemma score was 2.39.

Key words ethical awareness, ethical dilemma, ethical education, opinion decision

서 론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부터 총체적인 격변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신념이나 삶의 가치 또는 직업적 신념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개인의 특성 등 인간에 대한 가치를 변화시키고 윤리적 가치에도 변화를 가져왔다¹⁾. 또한, 생명활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생명에 대한 가치를 변화시키고 윤리적 측면에서 갈등을 야기시키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리문제는 그 범위와 본질을 크게 변화하고 있다²⁾.

현대로 오면서 구강보건 분야에서도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구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치과위생사 자신들의 노력으로 역할과 영역이 확대되면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치과위생사들은 단순히 병원이나 의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사람들 즉, 환자와 그 가족,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평가됨에 따라 실제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치과위생사가 선택해야 할 일들도 많아지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야 할 의무가 커지게 되었다. 사회일반의 권리의식 신장과 의료에 대한 의식 변화는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권리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고, 치과위생사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는 현장에서의 많은 실제적인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³⁾.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들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치관 변화와 도덕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을 더욱 다양화하게 만들고 해결방법 또한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윤리기준은 윤리강령에 의한 바와 같이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치료,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Corresponding author
Tel: 043-230-2664
Fax: 043-230-2669
E-mail: chst6619@hanmail.net

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복지의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치과위생사의 직무윤리 확립과 권익을 보호한다고 규정되었다⁴⁾.

현실적으로 환자 구강관리와 치료에 있어서 윤리적 의사결정은 전문직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전문성을 의미하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능력은 간호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도 요구한다⁵⁾.

이에 치과위생사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치과위생사들은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고 치과위생사의 윤리의식 및 윤리적 입장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해지고 있다⁶⁾.

윤리적 딜레마는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내포된 상황에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문제 혹은 어떤 선택이나 상황이 동등하게 불만족스러운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해야 하는 경우로⁶⁾ Allen⁷⁾은 건강관리에서 윤리적 딜레마는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둘 이상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상호간의 배타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적용되는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현대에서의 치과위생사는 타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합리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신념을 옹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환자의 옹호자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치과위생사들이 내리는 의사결정들 가운데에는 도덕과 무관한 사항들도 많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도덕적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덕 문제인 경우가 많다. 어떤 상황의 도덕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상황을 단지 개인적인 관점이나 자기 자신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초월할 만큼 성숙해야 한다⁸⁾.

따라서, 현재까지는 의사결정 시 윤리적 관점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앞으로는 윤리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이를 중시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윤리적 의사결정과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가 간호학과 의학 분야, 교육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실무자들의 윤리에 대한 양적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치의학 분야에서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윤리의식과 교육, 의사결정 요인과 그에 따른 영역을 분류하여 알아봄으로써 치과위생사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지침이 되어줄 바람직한 치과위생사들의 치위생 윤리에 관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윤리의식과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의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윤리의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10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록 회원 중 인천, 경기, 충청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 400명을 대상으로 임의표본 추출하여 설문을 우편발송하거나 Study 모임 시 양해를 구한 후 방문하여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하여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44부를 제외한 356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치과위생사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심³⁾과 기⁹⁾의 도구를 치과위생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5문항(연령, 학력, 결혼여부, 근무지, 총 근무경력), 윤리관련 특성 5문항, 윤리적 영향요인 6문항, 윤리적 딜레마 18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12$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WIN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윤리관련 특성, 윤리적 의사결정요인에 대하여는 빈도와 백분율 산출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alpha=0.05$ 로서 판정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분포는 21-25세 36.0%, 26-30세 45.5%, 31-35세 11.5%, 36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Values	Person (%)
Age	21-25	128(36.0)
	26-30	162(45.5)
	31-35	41(11.5)
	36 over	25(7.0)
Education	College graduate	250(70.2)
	University graduate	76(21.3)
	Over postgraduate	30(8.4)
Marriage	Unmarried	282(79.2)
	Married	74(20.8)
Working place	Dental clinic	186(52.2)
	Dental hospital	73(20.5)
	General hospital	97(27.2)
Career(years)	Less than 1	50(14.0)
	1-3	95(26.7)
	4-6	91(25.6)
	7-9	67(18.8)
	9 over	53(14.9)
Total		356(100.0)

이상 7.0%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 79.2%, 기혼 20.8%로 미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에 있어서는 3년제 졸업 70.2%, 4년제 졸업 21.3%, 대학원 이상 8.4%의 분포를 보였으며, 4년제 졸업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은 최근 4년제 대학의 증가와 전공심화 과정개설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근무지에 있어서는 치과의원 52.2%, 종합병원 27.2%, 치과병원 20.5% 순이었으며, 경력에 있어서는 1년 미만 14.0%, 1-3년 이하 26.7%, 4-6년 이하 25.6%, 7-9년 이하 18.8%, 9년 이상 14.9%이었다.

1. 윤리관련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윤리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정도에 있어서 64.9%가 내용은 알지 못하나 윤리강령이 있다는 것은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17.4%는 윤리강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윤리적 딜레마 경험 시 상담대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동료나 선후배 치과위생사(84.0%)라고 응답하였고 본인의 가족 7.6%, 기타 4.8%, 치과의사 2.5%, 환자나 환자가족 1.1% 순이었다. 졸업 후 치위생 윤리에 대한 교육경험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86.5%), 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는 8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참여의사에 있어서는 그렇다가 50.0%인 반면 모르겠다는 반응은 41.6%였다. 무응답이 많은 관계로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윤리적 덕목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성실, 정의, 용기, 동정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Ethics-related Characters

Variables	Values	Person (%)
Understanding standard of Ethics code	Understand the contents	63(17.7)
	Know the existence, not the contents	231(64.9)
	Don't know the existence	62(17.4)
Adviser about ethical dilemma	Colleague or senior, junior	299(84.0)
	Dentists	9(2.5)
	One's own family	27(7.6)
	Patient or patient family	4(1.1)
	Etc.	17(4.8)
Education experience of dental hygiene ethics after graduation	Yes	48(13.5)
	No	308(86.5)
Necessity of ethics education	Yes	309(86.8)
	No	44(12.4)
	Non response	3(0.8)
Intention to participation in ethics education	Yes	178(50.0)
	No	6(1.7)
	Don't know	148(41.6)
	No interest	21(5.9)
	Non response	3(0.8)
Total		356(100.0)

Table 3. Decision factor of ethical intention

Variables	Values	Person (%)
Influence of the opinion	Significant	21(5.9)
	Yes	119(33.7)
	A little	189(53.5)
	Never	24(6.8)
Total		353(100.0)
Variables	Values	M±SD
Factor of influence	Policy & process of the hospital	3.50±.93
	Fear of unemployment	2.49±.96
	One's own belief & value	3.43±.90
	Ethics principles	3.10±.84
	Ethics code of dental hygienist	2.76±.86

윤리적 의사결정요인에 있어서 치위생 업무 수행 중 본인이 제기하는 의견의 영향력 정도에 대한 결과로는 '영향력이 약간 있다' 53.5%, '영향력이 있다' 33.7%, '전혀 없다' 6.8%, '매우 크다' 5.9% 수준을 보였으며, 치위생 업무 수행 중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 시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영향요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병원의 정책과 절차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상실의 두려움이 2.4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2.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의 18개 문항을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후 각각을 치과위생사와 전문직 업무, 치과위생사와 협동자, 치과위생사와 대상자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별 점수는 Table 4와 같다. 영역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치과위생사와 전문직 업무가 2.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위생사와 대상자 2.33점, 치과위생사와 협동자 2.28점 순이었다. 전체적 딜레마 점수는 2.39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와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윤리적 딜레마의 각 영역별 차이를 보면 치과위생사와 전문직 업무와 관련해서 연령에서는 31-35세와 36세 이상이 2.63점,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이 2.69점,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2.57점, 근무지에서는 종합병원이 2.60점, 근무경력에서는 1-3년 이하가 2.63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집단과의 차이는 적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었다. 각 영역별 및 전체적인 딜레마에서도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다. 치과위생사와 협동자 영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근무지에 있어 종합병원인 경우 2.41점에 비해 개인의원은 2.17점으로 낮았으며, 근무경력에 있어 1-3년 이하가 2.43점으로 높았으나 1년 미만인

Table 4. Grade by field of ethical dilemma

Variables	M±SD
Dental hygienist with the profession	2.56±.58
Dental hygienist with coworker	2.28±.79
Dental hygienist with object	2.33±.75
Ethical dilemma	2.39±.61

Table 5. Ethical dilemma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특성	구분	The profession	Coworker	Object	Dilemma
		M±SD	M±SD	M±SD	M±SD
Age	21-25	2.59±.58	2.29±.81	2.41±.76	2.43±.61
	26-30	2.50±.58	2.26±.78	2.23±.77	2.33±.63
	31-35	2.63±.60	2.34±.83	2.37±.70	2.45±.62
	36 over	2.63±.53	2.26±.70	2.47±.68	2.45±.53
	F(p)	.918(.432)	.139(.936)	1.679(.171)	.854(.465)
Education	College graduate	2.56±.57	2.25±.78	2.36±.74	2.39±.60
	University graduate	2.49±.59	2.30±.74	2.20±.79	2.33±.61
	Over postgraduate	2.69±.63	2.50±.93	2.41±.77	2.53±.71
	F(p)	1.293(.276)	1.308(.272)	1.561(.211)	1.179(.309)
Marriage	Unmarried	2.57±.59	2.29±.81	2.33±.77	2.40±.63
	Married	2.52±.53	2.23±.72	2.34±.69	2.36±.54
	t(p)	.655(.513)	.632(.528)	-.098(.922)	.437(.663)
Working place	Dental clinic	2.57±.59	2.17±.80	2.47±.71	2.40±.63
	Dental hospital	2.53±.56	2.26±.78	2.29±.76	2.36±.60
	General hospital	2.60±.61	2.41±.78	2.30±.76	2.44±.63
	F(p)	.553(.575)	2.074(.127)	1.641(.195)	.535(.586)
Career (years)	Less than 1	2.47±.64	2.11±.74	2.34±.72	2.31±.62
	1-3	2.63±.57	2.43±.86	2.40±.78	2.49±.62
	4-6	2.51±.58	2.22±.75	2.19±.75	2.31±.61
	7-9	2.58±.54	2.30±.73	2.41±.79	2.43±.60
	9 over	2.56±.58	2.25±.82	2.32±.67	2.37±.60
	F(p)	.900(.464)	1.573(.181)	1.145(.335)	1.302(.269)

경우 2.11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적 딜레마도 연령에서는 31-35세와 36세 이상이 2.45점,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이 2.53점,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2.40점, 근무지에서는 종합병원이 2.44점, 근무경력에서는 1-3년 이하가 2.49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영역보다도 집단 간 차이는 더 적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대상자 모두 아직까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부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고 찰

과학기술과 사회적 규범의 급속한 변화는 끊임없는 윤리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¹⁰⁾ 일반사회의 윤리문제와 더불어 의료사회의 윤리문제 또한 그 범위와 본질이 크게 변화하였고,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며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현장에서 의료인들은 더욱 다양한 윤리문제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¹¹⁾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분별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윤리적 가치는 전문직 실천과 분리할 수 없으며 치과위생사는 그들 자신의 전문직 역할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윤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¹²⁾ 보다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치

위생의 철학이 확립되어야 한다. 즉 윤리적 의사결정은 치과위생사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지식이 근거가 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기반이 되는 것이다.⁶⁾

치과위생사는 사회적 역할을 감안할 때 치위생계에서의 치위생 윤리에 관한 적극적인 도덕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본다. 치위생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치과위생사 자신들의 노력으로 역할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타인들의 치과진료와 관련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전문직 행위에 실제적인 지침이 되어줄 수 있는 치위생 윤리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¹³⁾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 윤리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윤리인식과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딜레마를 파악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윤리의식과 윤리적 딜레마의 확립에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 인식은 '내용은 알지 못하나 윤리강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집단이 64.9%였다. 간호사의 경우 심³⁾의 연구에서 35.3%가 알고 있지 못하여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양¹⁴⁾의 연구에서는 확실히 알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97.1%, 기⁹⁾의 연구에서는 윤리강령의 내용인식이 100%로 높게 나타나 간호사의 윤리강령의 인식이 치과위생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인식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윤리적 딜레마의 경험 시 상담대상은 84.0%가 동료나 선후배 치과위생사와 상담을 7.6%는 가족과, 2.5%는 치과의사와 상담을 한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심³⁾의 연

구에서는 동료 간호사 60.8%, 의사 27.5%였고, 양¹⁴⁾의 연구에서는 동료간호사가 80.9%, 기⁹⁾의 연구에서는 91.7%가 동료나 선후배 간호사와 상담을 한다고 하여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한 경우에는 가족과 윗 상사보다는 동료와 선후배 직장동료가 훨씬 편안한 상담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졸업 후 치위생 윤리에 관한 교육경험은 86.5%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양¹⁴⁾의 연구에서는 71.7%가, 김¹⁵⁾의 연구에서는 69.5%, 기⁹⁾의 연구에서는 51.2%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심³⁾의 연구에서는 9.8%만이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치과위생사 보다는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경험이 높았다. 이는 간호직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치과위생사보다는 직업윤리에 관심과 교육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부터라도 치과위생사들은 협회나 학회 등을 통하여 직업윤리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윤리교육의 필요성은 8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간호사의 경우 양¹⁴⁾의 연구에서는 95.0%가, 기⁹⁾의 연구에서는 92.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치과위생사가 간호직보다는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이는 윤리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진료에서의 윤리적 딜레마가 될 만한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치위생 윤리에 대한 많은 고민과 관심이 적은 결과라고 사료된다.

윤리교육의 참여의사에서 치과위생사는 5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간호사의 경우 심³⁾의 연구에서는 37.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치과위생사의 교육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들의 윤리교육의 참여의사가 높은 만큼 협회나 학회에서는 다양한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치과위생사 윤리의식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 성실, 정의, 용기, 동정 순으로 나타났고 심³⁾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의료직에 종사하는 직종은 정직과 성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의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교육에서도 가장 강조시켜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윤리적 의사결정 요인에서 치위생 업무 수행 중 영향력의 정도는 93.2%가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의사결정 시 영향요인으로는 '병원의 정책과 절차'가 5점 만점 중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본인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3.43), 윤리이론과 윤리원칙(3.10),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2.76), 직업상실의 두려움(2.49)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심³⁾의 연구에서 병원의 정책과 절차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47.1%로 가장 높고 환자의 소망에 대한 영향(43.1%),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41.2%), 윤리적인 원칙(27.4%), 간호사의 윤리 강령(17.7%), 직업상실의 두려움

과 승진기회의 상실(15.7%)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위의 결과 두 직종 모두 병원의 정책에 가장 영향이 높았고 직업상실의 두려움에 대한 영향이 가장 낮은 원인은 타 직종에 비하여 환자간호라는 것은 직업에 대한 상실보다는 병원과 자신의 신념을 중요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전문직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윤리적 딜레마의 영역별 점수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와 전문직 업무는 평균점수가 2.56점, 대상자 영역은 2.33점, 협동자 영역은 2.28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기⁹⁾의 연구에서 간호사와 전문직 업무는 4점 만점 중 평균 2.28점, 협동자는 2.15점, 대상자는 2.05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김¹⁵⁾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5점 만점 중 평균 3.94점, 협동자 3.88점, 간호업무 3.41점이었고 양¹⁴⁾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업무가 4점 만점 중 평균 2.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상자 2.45점, 협동자 2.33점으로 나타났다. 박²⁾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1점 만점 중 평균 0.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 업무(0.55), 협동자 영역(0.4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¹⁶⁾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5점 만점 평균 3.99점으로 가장 높았고 협동자(3.84), 간호업무(3.44) 순으로 윤리적 딜레마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위의 결과 간호직보다 치과위생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하여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난 결과는 아직까지는 윤리의식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결과로 사료된다. 연령, 교육정도, 결혼여부, 근무장소, 경력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관계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자 모두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윤리의식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와 윤리의식에 대한 고취의식을 높여주도록 협회에서는 다양한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개발로 윤리의식에 관한 발표와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기관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윤리의식을 심어주고 졸업 후에도 업무 시 윤리적 딜레마에서 치위생 윤리와 관련한 고민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치과위생사로서 전문직업인으로써 질 높은 능력과 기술을 갖춘 치과위생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SPSSWIN 14.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정도에 있어서 64.9%가 내용은 알지 못하나 윤리강령이 있다는 것은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윤리적 딜레마 경험 시 상담대상에 있어서는

- 대부분의 경우 동료나 선후배 치과위생사(84.0%)라고 응답하였다.
- 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 86.8%의 대상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참여의사에 있어서는 그렇다가 50.0%인 반면 모르겠다는 반응도 41.6%나 되었다.
 - 윤리적 의사결정시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병원의 정책과 절차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상실의 두려움이 2.4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윤리적 딜레마 영역별로 치과위생사와 전문직 업무가 2.56점, 치과위생사와 대상자 2.33점, 치과위생사와 협동자 2.28점 순이었고, 전체적 딜레마 점수는 2.39점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적 딜레마는 연령에서 31-35세와 36세 이상, 학력은 대학원 이상, 결혼 상태는 미혼, 근무지는 종합병원인 경우, 근무경력이 1-3년 이하에서 점수가 높았으나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임.

참고문헌

- 황경식: 생의 윤리와 간호. 한국가톨릭 간호협회 보수교육, 한국, pp.7-26, 1988.

- 박현주, 김미혜: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대처유형. 한국간호교육학회 10(1): 75-83, 2004.
- 심옥주: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도덕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2002.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과위생사 윤리강령. <http://www.kdha.or.kr/>
- 한성숙, 안성희: 간호학생의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간호행정학회지 1(1):5-21, 1995.
- 한성숙: 간호사들의 임상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실상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2.
- Allen DF, Marsha DF: Cognitive moral development theory and moral decisions in health care. *Medicine & Health Care* 10(1):19-23, 1982.
- 한성숙 외 8인: 간호윤리학.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p.25, 2000.
- 기은희: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 직업성[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8.
- Hayne Y, Moore S, Osborne M: Nursing ethics. A turning point *Nusing Forum* 25(4):10-12, 1990.
- 한성숙, 안성희: 간호윤리 교육이 간호학생의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1(2):268-284, 1995.
- Omery AK: Values, moral reasoning, and ethics. *Nu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4(2):505, 1989.
- 홍여신, 한성숙, 임영란: 간호윤리학. 신평출판사, 1992.
- 양야기: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광주, 2003.
- 김주희 외: 임상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태도조사. 대한간호과학회지 25(3):469-509, 1995.
- 강익화: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태도 조사. 대한보건간호학회지 12(2): 48-66, 1998.

(Received July 27, 2010; Revised August 16, 2010; Accepted August 18, 2010)

